

개성화 과정에서 경험한 대극 통합의 상징: 어머니 **The Symbol of Integration of the Opposite Pole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Mother**

김 경 남*

Kim Kyung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ther symbol for a female client in her early thirties by focusing on the dream series and sandplay box referred to in the sandplay therapy course. By focusing on the three themes of nurturing mother, ambivalent mother, and terrible mother, this female client integrates the personal unconscious and the mother archetype energy of the collective conscious in an interesting and sincere journey.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see how negative mother archetype transforms into creative and positive energy. Sand play therapy, which provides a safe place for the client's unconscious work, and the mother symbols which appeared in the dream to aid in the healthy self-function of consciousness, helped the client to have appropriate emotional control. It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her physical illnes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examine examples of sandplay of both adults and children, archetypal products and others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three mother symbols. The frequent appearance of the mother figure during the individual process,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inner world, is significant of th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resolved within the relationships with one's own mother and even with the archetypal mother.

Keywords : mother, symbol, sandplay therapy, dream

* 대전지방법원 · 가정법원 천안지원 전문 가사조사관 (knmaria@hanmail.net),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대학원 아동상담 · 심리치료 전공

I. 서 론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 동물, 생물 등에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실존 하였기에 우리 또한 실재할 수 있으며, 수많은 이들의 성격, 겉모습, 취미, 가치관 등이 다르듯 각 개인이 경험한 어머니 유형 역시 다양하다. 자애로운 어머니, 친구 같은 어머니, 희망을 주는 어머니, 충분히 품어주는 어머니, 자식보다 자기애가 더 강한 어머니, 학대와 방임을 일삼는 어머니, 무시하는 어머니, 엄격한 어머니 등의 다양한 유형을 묘사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라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이는 쉽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탐색하는 사람은 결코 쉽게 단정 지어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개인에게 어머니는 무의식의 영역에서부터 의식의 영역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어,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격은 어떠한지,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개인의 반응은 어떠한지, 어머니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들의 회상과 탐색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마치 들추고 싶지 않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상자를 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회상과 그 과정 중의 연상은 지배적인 사회질서와 관계없다. 어머니에 대한 경험은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거대하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아동기를 채운다(Biedermann, 1989).

보편적으로 어머니 상징은 지혜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모든 원소를 지배하는 여주인, 모든 영적인 군주를 통치하는 군주를 상징한다. 또한 모든 생명의 기원이며 풍요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탄생, 죽음, 재생의 문을 지킨다. 어머니는 창조와 파괴자의 양면성을 가지며 모든 생명의 창조자, 육성자이면서 생명을 매장하는 묘지를 의미한다(Cooper, 1978/1994).

모성 원형도 끝없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이고 유익한, 혹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를 가진다. 양가적 측면에서는 운명의 여신(파르젠, 그래엔, 노르넨)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모녀, 용(거대한 물고기와 뱀 같은 모든 것을 삼키고 칭칭 감은 동물들), 그리고 무덤, 석관, 물의 심연, 죽음, 유령 그리고 어린이를 놀라게 하는 괴물이 있다(Jung, 1984/2002).

앞으로 다룰 어머니 상징은 30대 초반인 여성 내담자의 꿈 시리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내담자는 어느 날부터 어머니와 통화가 반갑지 않고 예전과 다르게 어머니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머니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지면서도 알미운 감정이 든다고 하였다. 내담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할 최근의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다. 어머니에게 이런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딸에게도 감정 조절을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내담자는 딸에 대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어머니와 관련되어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과 ‘이제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고하면서 연관성을 찾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약 1년 정도부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으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호르몬 불균형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치료자로서 내담자가 어머니와 관련된 작업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내담자의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상징임이 느껴졌다.

상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우는 기호로 감정적, 정신적 측면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것이다(Tresidder, 2000).

내담자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어머니와 관련된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때때로 내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하였으며, 심지어 2~3주 동안 심한 몸살에 걸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무의식의 요구는 먼저 몸을 마비시키는 독처럼 실행력과 진취욕에 영향을 미친다(Jung, 1985/2006). 의식성의 증가는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은 새로운 의식성의 조각을 알리는 방식이며, 이러한 대면은 많은 신화와 종교적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광야나 도망자 상태, 즉 소외상태(무기력, 우울)에서 일어난다(Edinger, 1972). 내담자의 무의식은 점차 어머니에 대한 작업을 활성화하였고, 앞으로 살펴 보게 될 여러 꿈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의식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어머니에 관한 다양한 상징이 있으나, 내담자와 작업을 통해 인식하게 된 양육적인 어머니, 양가적인 어머니, 파괴적인 어머니 상징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표현되는 내담자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다.

II. 어머니의 상징적 의미

1. 양육적인 어머니 상징

인간은 그 어느 동물보다 출생 후 발달과정이 느리다. 그래서 아동에게 부모의 보살핌은 전적으로 중요하고, 특히 어머니는 아동의 태내기 시기부터 출산, 성장 과정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때로 어머니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돕고, 건강한 성인이 되기까지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어머니의 양육이 절대적인 요소이나, 모든 어머니와 아동이 안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키지는 않는다. 심리적으로 미숙한 어머니라면 양육 받는 아동 역시 미성숙한 발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초적인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는 모든 형태의 관계 질을 결정하고, 이것은 자신의 정신내적 경험뿐 아니라 다른 사람, 사물, 사건과의 관계까지 포함한다(Neumann, 1973; Turner, 2005).

내담자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언급한 후 어머니와 관련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엄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요.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서 두려웠던 기억도 나요. 강아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엄마는 저편에서 빨래하고 있었어요. 무서웠는데 엄마는 별일 아닌 것처럼 나를 봤어요. 성적이 올라서 엄마가 즐거워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즐겁고 행복한 감정보다 외로움, 슬픔이 더 크게 와 닿아요. 그동안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상처가 많았네요. 그렇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어요. (긴 한숨을 내쉬며) 누군가 무엇으로 나를 억누르고 있는 답답함이 느껴져요.”

내담자는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들을 회상하며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슬픔과 죄책감의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은 혼란된 기초관계의 증상이고, 아동은 어머니의 상실을 사랑받지 못하거나 비난받거나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혐오적인 것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죄책감은 전반적인 감정이 된다(Neumann, 1973). 정서적 돌봄이 부족한 어린 시절을 보낸 내담자는 착하고 순종적인 딸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늘 헌신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인식해왔던 내담자는 어머니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은 내담자의 개인 무의식에 억압되었고, 억압된 에너지인 그림자는 내담자 어머니와 딸에게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투사되었으며, 그림자를 의식하는 작업은 내담자의 깊은 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림자의 의식화는 그림자의 존재만을 보는 게 아니라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이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정신이 전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식화이다(이부영, 1999). 결국 무의식은 그림자가 의식의 일부분에 동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은 무의식의 보상작용이다.

내담자는 몇 회기 후 첫 번째 꿈을 소개하였다.

“배경은 원시시대이고, 동물들이 무리 지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러 동물 가운데 커다란 코끼리와 갈색곰이 인상적으로 느껴져요. 장면이 바뀌면서 갑자기 제가 코끼리 품에 안겨 있어요. 사실 코끼리 피부는 매우 두껍고 거칠었는데, 너무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담요 안에 있는 것 같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눈을 감은 채 코끼리에게 몸을 맡겼어요.”

무의식의 이끌림에 응답한 내담자의 첫 번째 꿈은 심리적으로 무엇을 인식하고자 하는 순간이고, 보통 첫 번째 모래 상자 및 꿈은 내담자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 내담자의 자원, 내담자의 에너지 등을 보여준다. 그림자의 탐색은 무의식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돌봄을 발견하도록 안내하였고, 모성 원형의 상징인 코끼리와 곰을 통해 양육의 포근함과 편안함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코끼리의 containing은 생애 초기 양육적인 어머니가 그러하듯 몸 그릇으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내담자들은 본격적인 내적 작업을 앞두고 에너지를 비축하는데, 그녀에게는 온전히 긍정적이고 모성적인 무의식의 경험으로 표현되었고, 모성 콤플렉스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긴 여정은 온전한 양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내담자는 다음 회기에 아래와 같은 모래 상자를 완성하였다. 내담자는 모래 상자 작업을 하면서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하였고, 대자연과 모-자 단일체 형상의 돌 상징을 통해 모성 원형의 양육적인 측면을 표현하였다. 내담자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아치형 문으로 표현하였고, 자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기(Self)의 모습을 중앙의 크리스털 볼로 상징화하였으며, 대지의 성장 및 자연 모성을 초록의 숲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의자에 앉아 있는 독립된 자아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이는 내담자가 이 상황을 조망함으로써 씨앗 상태에서 발달해야 하는 자아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써 주변을 밝히는 희생과 헌신의 모티브이고,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양육을 연상시킨다. 또한,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긍정적인 상징인 그릇(Neumann, 1963/1991)과 유사한 바구니에 담겨있는 토끼를 통해서도 양육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림 1-1. 30대 초반 여성 내담자가 경험한 양육적 어머니와 관련된 모래상자장면



그림 1-2. 모-자 단일체 형상의 돌 figure와 대자연 확대

모래놀이치료에서 양육적인 어머니는 내담자로 투사된 figure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함께 있어주거나, 유모차를 밀어주는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은 내담자가 양육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모래놀이치료 상황에서 실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Bradway & McCoard, 1997). 먹은 음식을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변화, 변환이 일어난다.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신체 세포의 통일성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 요소적 동물적 성적 변화의 체험이다. 피곤해하고, 허기져 죽어가고, 허약한 상태에서 보다 더 기민하고, 강하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되듯이, 혹은 목마름에서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음료를 통한 변환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한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먹는 행위는 인간에게 알려진 내적 수용과 의식화의 첫 번째 형태이다(Neumann, 1954/2010).

40대 중반의 여성 내담자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연상하며 다음의 모래상자를 완성하고, 매우 흡족해 하였다. 내담자는 현실에서 외롭거나 무기력할 때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떠올리며 힘을 낸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고, 양육적인 어머니 경험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슴 모티브는 전형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양육적 어머니 상징이고,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과 인간의 중요한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여신 ‘닌후르사그(Nin-Khursag)’는 신성한 우유를 공급하였다. 가슴 모티브는 ‘양육하는’ 어머니의 상징과 관련 있음이 분명하다(Neumann, 1963/1991).



그림 1-3. 40대 중반 여성 내담자의 모래상자장면

무기력하고 우울한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한 만 6세의 여자 내담자는 모래놀이상자와 미술작품을 통해 구강기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내담자는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연상되는 음식들과 직접 만든 점토 형상물을 만다라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심약한 개인 어머니에게 불충분했던 영양분을 공급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6세 여아의 구강기 욕구 충족을 위한 모래장면



그림 1-5. 6세 여아가 완성한 미술작품

놀랍게도 멕시코 여신 마야우엘(Mayaue)은 사백 개의 가슴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고, 고대 이탈리아 숲의 여신인 디아나(Diana)도 많은 가슴을 지닌 위대한 어머니이자 양육자로 소개된다(Neumann, 1963/1991).



그림 1-6. 에페소스의 디아나
출처. <http://www.pholar.co>

2. 양가적인 어머니 상징

어머니는 한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하고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해도 자식의 정신

안에 머물며, 그 자식이 죽더라도 다음 세대에 남는다. Jungian의 이론에 따르면, 인류가 시작되고 발달함과 동시에 어머니 역시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개인무의식,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한다.

모든 인간 활동에는 선형성이 있고, 이것은 타고난 전의식이자 무의식이며 개인적인 구조다(Jung, 1984/2002). 정신구조 가운데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형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정신의 토대이고,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인 상(imago)이 있는데 그것을 원형이라 부른다. 이 원형 가운데 태모(Great Mother) 원형은 개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개인의 할머니, 유모, 가정부에서도 발견된다(Bidemann, 1989).

모성 원형의 성질은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이고,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의 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Jung, 1984/2002; Neumann, 1973). 이렇듯 모성원형은 양면적인 측면이 강하고, 사랑, 희망, 도움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죽음,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 올가미 같은 에너지를 내뿜는다.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우면서도 알미운 마음의 양가감정을 느끼던 내담자는 두 번째 꿈을 소개하였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호수의 물은 미온수처럼 따뜻하고 약간의 점성이 있었어요. 2~3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금방 (물고기가) 빠져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물이 불어났어요. 너무 두려웠고, 어느새 저는 어린아이가 되어 호수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꿈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특수한 정신기능의 일부이며, 단일성보다 다양성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한다. 또한, 꿈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의식에 대한 보상기능(compensation)이다(이부영, 1978). 그러므로 꿈을 통하여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의 중심에 있는 건장한 자아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내담자는 위 꿈을 통해 무의식을 바라보는 의식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직면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치료적 과정은 초기 아동기 경험의 심층부로 안내한다(Ammann, 1991). 동시에 미온수의 따뜻한 물이 있는 호수의 물고기를 통해 태아기적이면서 아직 영역을 펼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자아의식의 배아가 깨어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태아기 상태의 자아는 심혼적으로 보면 전혀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탄생 전 시기>로 묘사되고, 태내의 대양인 즉 자궁에서 헤엄치고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호수, 연못 등의 원형이 작은 것을 품고 있고 보유하고 기르는

것은 근원적인 모성 영역에 속한다(Neumann, 1954). 그리고 곧 새로운 발달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어린아이가 등장함으로써 자아의 새로운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가능성과 생명을 의미하는 어린이는 다른 말로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린이는 새롭게 탄생한 것, 아직 오지 않은 또는 와야 할 것의 상징이며 전의식(pre-conscious)이다. 태도, 발달,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낡아서 더 이상 살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기존의 것으로부터 발달하는 후의식(post-conscious)이라고 하며, 앞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는 지혜, 희망, 갈망, 잠재력의 측면에서 미래이다(장미경, 2017). 곧 내담자는 나이가 들은 어머니를 자신이 오히려 보살펴야 하는데 여전히 어머니에게 보살핌을 받길 원하는 자신의 태도를 발견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미성숙된 감정과 태도에서 짜증의 감정이 유발되었음을 인식하였다. 더 나아가 독립되고 성숙한 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내담자는 얼마 뒤 세 번째 꿈을 소개하였다.

“시대적 배경은 중세시대였고, 검은색으로 된 큰 성당에 들어갔어요. 아주 깊은 지하로 연결된 원통형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은 아래로 아주 깊게 뚫려 있었어요. 어느새 나는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고, 마지막 계단을 내려갈 때 짙은 동굴이 보였어요. 주변은 어두웠고, 동굴에서 환한 빛이 비추었는데 웬지 모르게 느낌이 무서웠어요. 거기에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어린아이는 하얀 이불에 싸여 안겨 있었어요. 막연히 아이가 매우 어리다는 느낌이 들던 찰나에 그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이 갑자기 흉측하게 변하면서 검은 피부와 이빨을 보이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담자는 위 꿈을 보고하면서도 여인의 흉측한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를 회상하며 어릴 적 혼자 결정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에게 혼나고 지적받을 것 같은 불안, 두려움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긴장하던 모습을 연상하였다. 어머니는 피난처, 따뜻함, 사랑, 양육을 의미하지만 지나치게 양육하고 지나친 교육자의 임무를 행사함으로써 아동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고 답답한 고통의 위험을 겪게 한다. 어머니는 출산으로 생명을 주지만, 아동을 엄청난 위험이 빠뜨리고, 아동의 힘을 빼앗는다(Robert, 1982).

위의 꿈은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모성 원형의 양가적인 측면을 놀라운 만큼 잘 보여준다. 꿈의 구조 역시 Jungian의 정신 구조와 유사한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고 지하로 연결된 원형의 계단들을 통해 깊은 내부로 들어간다. 무의식은 꿈을 통해서 갖가지 부

질없는 몽상과 기이한 상념과 공포와 정신을 어지럽히는 허상을 마음으로 올려 보낸다. 인간이라는 왕국에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비교적 깔끔하고 비좁은 처소의 바닥 밑에 뜻밖에도 알라딘의 동굴이 뚫려 있다. 여기에는 보물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꼬마 정령, 그리고 우리로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거나 감히 우리 일상의 삶으로 통합하지 못했던, 불편한 혹은 억압당한 심리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무섭다고 하는 까닭은, 질서의 바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Campbell, 1949/2008). 내담자는 어머니 자궁의 대표적인 상징인 동굴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양가적인 어머니를 직면하였으니,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Jung(1984/2002)은 모성 원형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양하지만 넓은 의미로 지하세계, 보다 좁은 의미의 동굴로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림 2-1. 바로셀로나의 검은 성모상

출처. <http://blog.naver.com/nudement>

von Franz(1999)는 숭고하고 영적이고 순수한 속성 같은 것들만 물려받은 동정녀 마리아의 어두운 측면을 ‘검은 성모상’으로 설명하였고, ‘검은 성모상’이 ‘이시스’신전이 있던 자리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으며 같은 곳에서 ‘검은 성모상’이 발견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어둡고 두려운 양가적인 측면을 설명하였다. 동굴의 환한 빛과 하얀 이불은 성모 마리아의 긍정적인 성향과 연결되고, 검은 피부와 흉측한 표정은 마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어머니의 양가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며, 바로셀로나의 검은 성모상 역시 빛나는 황금 옷을 입고 있다.

3. 파괴적인 어머니 상징

현대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이고 양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여성상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원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 무시, 평가절하 등을 받으며 고된 편견 속에서 살아온 많은 여성이자 어머니의 한(恨)이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자녀로부터 대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의 집단적 반영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어머니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모성적인 자기희생을 하는데도 실제로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종종 자신의 본능을 가차 없이 권력의지로 휘둘러 자신의 인격과 자녀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도록 밀어붙인다(Jung, 1984/2002).

내담자는 어머니를 회상하며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더 가치 있음을 교육받았으며, 불행히도 어린 딸의 양육을 어머니에게 맡기면서까지 직장생활을 선택하였다. 내담자의 양육적인 여성성은 매우 축소되었고, 사회적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남성성이 우세하였으며, 정신적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리 불순으로 표현되었다. 내담자의 여성성 축소 및 소실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경험하는 행복, 기쁨을 앗아갔으며, 어머니와 관계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파괴적 에너지의 영향이었고, 억압된 무의식의 에너지는 신체적 증상으로 타나났다. 자궁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저항은 생리 불순, 잉



그림 3-1. 파괴적인 이미지의 칼리 여신

출처. <http://egloos.zum.com>

태의 어려움,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모성 콤플렉스는 여성적 본능의 약화 내지 소실을 초래하며, 딸의 모성 콤플렉스는 여성적 본능을 과도하게 촉진하거나 억제한다(Jung, 1984/2002).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어머니 상징은 주로 ‘내부’에서 발생한 이미지들을 통해 표상된다. 여성성의 부정적인 기초적 성격은 자체로 환상적이고 초자연적 이미지들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이 이미지들은 공포의 어머니가 무의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외적세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어두운 측면은 이집트 또는 인도, 멕시코, 액트루리아, 발리 또는 로마 어디에서든지 괴물로 형상화된다. 모든 민족, 시대, 국가의 신화와 설화에서 마녀와 흡혈귀, 시체를 먹는 무덤 귀신, 요괴는 모두 똑같이 소름끼치도록 우리를 괴롭힌다. 인도에서 공포의 어머니 상징인 칼리는 가장 웅대한 형태를 드러내는 동시에 어둡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간을 의미하고, 뼈를 쪼어서 휘감고 있는 해골들의 여신이다(Neumann, 1963/1991).

얼마 후 내담자는 네 번째 꿈을 소개하였다.

“꿈속에서 저는 임신 중이었고, 곧 출산이 임박했죠. 많은 땀을 흘렸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곤 어디론가 걸어갔고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길을 나 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장면이 바뀌었고, 제가 출산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도와주는 의사도 없었고, 혼자 아이를 낳으며 시원하고 할가분한 느낌을 느꼈어요.”

꿈속에서 내담자는 생물학적인 임신보다 더 넓은 의미의 용기(vessel)로서, 신비를 품고 있는 모성의 상징으로 등장하였고,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마치 죽은 자의 영역에서 재탄생되는 되는 것에 비취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출산하기 전 내담자가 느끼던 답답함이 해소되고 할가분하게 달라진 정서는 출산 전과 후의 여성으로서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von Franz(1999)도 출산은 자유로운 여성 에너지가 죽고 재생 과정을 상징적으로 통과하는 여성의 변환으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내담자 무의식의 자아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으로써 변환을 시사하고 있다. 무의식은 신체와 관련되고 모성상은 무의식의 경험을 신체와 연결시키는데(Neumann, 1963/1991), 얼마 후 내담자는 호르몬 균형을 회복했다는 놀라운 변화를 알렸다. 내담자는 모성 콤플렉스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으로 바꾸었다. 모성과 연결된 사람은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선고된 자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오로지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모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를 괴롭히는 개인적 어머니가 아니라, 거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원형적

인 것, 즉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창조적 작업을 통해서만이 모성으로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강력한 약물, 질병 및 노령화 등에 의해 겉보기에 죽음과 같은 밤을 맞이하게 된다(Birkhäuser-Oeri, 2003/2012).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창조적 통로이고, 꿈의 상징을 이해하고 작업하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창조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만 12세의 남자 내담자의 사례를 통해 파괴적인 어머니 상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내담자는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래의 상자를 완성하였고, 치료자로서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거미는 파괴적 대모를 상징하고(Fontana, 1993; Cooper, 1978/1994), 안정감의 바탕이 되고 여성성의 숫자인 4를 두드러지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극복해야 하는 모성 콤플렉스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12세 남아의 파괴적 모성을 표현한 모래상자장면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충동적인 공격성을 주호소로 하는 만 9세 남자 내담자는 모래놀이치료 중반기에 들어서자 다음의 모래장면을 완성하였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3-3. 9세 남아의 모성 콤플렉스와 직면한 모래상자장면

“(기사들이) 여행을 떠났고, 오래된 마음에서 괴물을 만났어요. 이 괴물을 해치워야 이 마을의 평화가 와요. 그런데 이 괴물을 이긴 기사는 아직 없었어요.”

신화와 전설 등을 보면, 영웅은 배를 타고 여정을 계속하며 바다의 괴물을 만나거나 용을 만나 위험을 감수하고 용이나 바다괴물에게 정당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마찬가지로 내담자는 괴물로 등장한 파괴적인 모성 콤플렉스를 직면하고 있다. 마을에 들어선 기사는 전형적인 영웅의 모티브이고, 장애를 극복하고 의식화하기 위해 무의식의 잠재력을 용감하게 발산하고 있다.

III. 결 론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들이 어머니 상징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사례를 목격한다. 내면 세계의 탐색을 통한 개성화 과정에서 ‘어머니’ 상징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어머니 또는 원형적인 어머니의 관계에서 탐색하고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어머니 상징을 내담자들의 꿈과 다양한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은 더욱 의미 있어 보인다. 일반적인 꿈의 기능은 미묘한 방법으로 전체 마음의 평형성을 이루는 재료를 산출함으로써 회복시키는 것이고 내담자 역시 꿈을 통해 모성 원형의 다양한 에너지와 마주하게 되었다.

30대 여성 내담자는 어머니와 관련된 억압된 정서와 경험을 마주했고, 나이트 어머니에게 계속 보살핌을 받고자 한 미숙한 태도를 인식함으로써 그림자를 의식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자의 의식화는 좀 더 깊은 무의식의 탐색을 도왔고 모성 원형의 다양한 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자원이 되었다. 내담자는 코끼리 품에 안겨 있는 첫 번째 꿈을 통해 모성 원형의 양육적인 어머니를 경험하였고, 곧 이어 창조한 모래상자의 대자연과 모-자 단일체 상징을 통해서도 양육 에너지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양육적인 어머니 에너지는 좀 더 깊은 무의식으로의 하강을 촉진하였다. 내담자는 무의식에 압도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태아기 상태에 있는 자아의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예고하는 두 번째 꿈과 밝게 빛나는 동굴에서 하얀 이불로 어린아이를 감싸 안고 있지만 흥측한 표정과 이빨을 드러낸 여인을 마주하면서 모성원형의 양가적인 측면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랜 내면과의 대화 끝에 내담자는 희생으로 표현된 양육적이고 긍정적인 모성에너지의 대극적인 측면에 어머니의 충족하지 못한 사회적 욕구를 내담자를 통해 대리 만족하고자 한 파괴적인 모성 에너지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연결 지었다. 그 무렵 내담자는 임신과 출산의 꿈을 꾸었고, 이 꿈은 확장된 의식에 필요한 자아의 재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내담자의 부정적인 모성 에너지

지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담자는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성 원형의 다양한 에너지를 의식화하는 여정을 거쳤고 무의식의 활성화를 통해 신체적 질병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내담자에게 어머니 상징은 겸허한 태도로 정신의 역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개성화 과정을 위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식 창조를 도모하는 중요한 상징임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모래상자에 등장한 가슴모티프와 신화 속에 등장한 사백 개의 가슴을 가진 여신 마야우엘, 위대한 양육자여신 디아나를 통해 양육적인 긍정적 어머니 상징과 만나게 되었으며 von Franze(1999)가 설명한 ‘검은 성모상’과 바로셀러나의 ‘검은 성모상’의 상징으로 양가적인 어머니 상징에 대하여 이해하였다. 또한 모성원형이 여러 문화권에서 종종 마녀와 흡혈귀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파괴적인 여신 칼리로 상징화되어 심연에 자리 잡은 부정적 모성에너지로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징은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준다. 상징 그 자체가 이러한 내용의 적극적인 표현이듯, 꿈과 모래놀이치료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머니 상징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고 수용하고 느끼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능을 존중하고 담대하게 마주하는 작업은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개성화 과정의 일부분일 것이다.

놀랍도록 다양한 어머니 상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여러 성인 및 아동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경의를 표하고,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고 무의식의 세계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참고문헌

- 이부영 (197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이부영 (1999). 그림자. 서울: 한길사.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Ammann, R. (1991).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sandplay: Creative processes become visible*. Illinois: Open Court.
- Biedermann, Hans. (1989). *Dictionary of symbol*, New York: Penguin Books.
- Birkhäuser-Oeri, S. (2003). *Die Mutter in Märchen*. Fellbach: Bonz. (Trans. into Korean in 2012)
- Bradway, K., & McCoard, B. (1997). *Sandplay - Silent workshop of the psyche*. New York: Buller and Tanner Ltd.
- Campbell, J. (1949).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d*, Novarto, CA: New World Library. (Trans. into

Korean in 2008)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 New York: Thames and Hudson Ltd. (Trans. into Korean in 1994)

Einder, E. (1972). *Ego and archetype*. Boston: Shambhala.

Fontana, D. (1993). *The secret language of symbols*. London: Duncan Barid Publishers Ltd.

Neumann, E. (1954).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s Series XLII.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10)

Neumann, E. (1963). *The great moth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Bollingen. (Trans. into Korean in 1991)

Neumann, E. (1973). *The child*. New York: Harper and Row.

Jung, C. G. (1984). *Archetyp und undeußtes*. Dusseldorf: Walter Verlag. (Trans. into Korean in 2002)

Jung, C. G. (1985). *Heros und mutterarchetyp*. Dusseldorf: Walter Verlag. (Trans. into Korean in 2006)

Robert, S. A. (1982). *Dictionary of symbols*. Paris: Penguin Books.

Tresidder, J. (2000). *Symbols and their meanings*. London: DuncanBaird.

Turner, B. A. (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alifornia: Temenos Press.

von Franz, M. L. (1999). *The cat: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Toronto: Inner City Books.

Diana (2015, November 9). Retrieved from <http://www.pholar.co/post/359988/7305675>

Montserrat (2016, June 23).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nudement?Redirect=Log&logNo=220039428964&from=postView>

The Bloody Goddess-Kali (2012, September 25). Retrieved from <http://lsm20418.egloos.com/2894174>

투고일 : 2017. 10. 30

수정일 : 2017. 11. 22

게재확정일 : 2017. 11. 26